

# 모범적인 생산자단체는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해야

- 분회와 조합, 소개소업무수행 -

취재: 김 용 화 기자



최 종 필 사장  
◀신임 용인육계분회 회장

83년 2월17일 본회 이사회를 거쳐 정식 분회로 승인을 받은 용인분회(월간양계·86년5월호 게재)는 명실공히 육계생산자들의 단결된 조직력이 육계산업발전으로 연결되고 있어 전 양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잠실에서 100-2번 버스를 타고 민속촌을 향하여 40여분을 달리다 보면 도착하게되는 수지면-얼핏

보면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남다른게 없어 보이지만 판교나 동약, 어내, 성북, 이의 지역은 제외하고라도 풍덕천에만 100여 가구가 양계업을 하고 있는 대단위 양계단지임을 실감케 한다.

현재 용인분회(분회장:최종필사장)는 지난 88년 1월에 신임운영위원단을 구성하여 새로운 각오로 사

업을 펼쳐가고 있다. 지금까지 대개의 모임체가 발족과 동시에 몇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해체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용인분회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본금 축적은 물론 자체 사업을 할 수 있을만큼 성장을 하였다.

여기에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면서 지내온 양계인들의 본보기가 될만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았

다.

### 협회와 조합체제 병행

용인분회 회원은 총29명으로 관내에 산재해 있는 양계가구수를 비교하면 아직도 참여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이점을 감안 월계회 때에 회비를 징수치 않고 있어 항시 생산자가 원하면 쉽게 협회에 가입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협회속에 또다른 조직체가 있는데 회원을 중심으로 발족된 용인 육계조합이 그것이다. 조합발족시 30만원의 조합비를 출자하여 시작한 사업으로는 사료, 약품, 병아리에 이르기까지 공동구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출자금을 환불하고도 1억여원에 가까운 자금을 적립하여 이를 모체로 분회운영을 더욱 강력하게 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운영체제를 도입하게 된 동기를 최종필분회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어떤 단체건 회원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게 되면 운영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제아무리 생업을 위해 권익보호를 보장받게끔 한다는 구실로 모임이 있을 때마다 회비를 내라, 추진비를 걷자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자금이 없으면 의견이 분분하여 호지부지해서 성과를 거둘수가 없어 저희 같은 경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일치를 본후 조합결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분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회들 중에는 용인분회 처럼 조합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서너군데나 되지만 회원들간에 엇갈리는 의견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안정된 육계업을  
하기위해 직접  
「수지축산」이란 상호로  
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실정이다.

### 과감한 희생정신 발휘

분회를 구성할 당시만해도 계우회 형태로 친목계모임을 벗어나지 못했던 풍덕천지역에서 분회에 분회신청을 하고 이어 조합을 운영하기까지에는 많은 희생정신이 원동력이 되었다. 이곳의 회원들은 사육규모가 15,000수~30,000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에도 자금사정이 원활한 사람이 있기도하고 당장 사료 외상구입비 독촉에 시달리는 회원도 많았다.

이와 같은 시기에 분회운영상의 전일치를 본다는 것은 대단한 어려움이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자금사정이 좋았던 사람들이 매번 양보를 하는식으로하여 조합운영에 그런대로 성공을 거두게 된 동기였다고 전임 이예웅회장이 술회하고 있다.

"자금사정이 좋은 사람은 사료구입시 D.C를 받을 수 있어 절차상 복잡한 조합원끼리의 단체구입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현재 저희 용인분회 사료공동구매량은 성수기때 850톤, 비수기때 400

톤이 되고 있어 서로가 어려운데일 수록 단합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동구매를 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약품은 입찰식으로 구매를 하며, 병아리는 회원들이 필요로하는 전량을 구매하지는 못하고 20%선에서 부화장과 직거래하고 있으며 수당 20원씩 부화장에서 공제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말을 전하는 과정이야 쉽게만 보이지만 단돈 몇십만원 공동기금을 만들기에다 어려운게 사실인데 이처럼 조합운영을 순수한 생산자들이 모여 엄청난 기금을 창출해 냈다는 것은 실로 육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생각하도록하는 교훈이 아닐 수가 없다.

### 회원들이 직접 소개소 운영

많은 육계업자모임들이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닭출하시이권(利權)다툼에서이다. 몇만수가 하루에 소비하는 사료량이 엄청나기도 하지만 가격변동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불안정할 때면 하루 늦고 이른 출하가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서로 출하시기를 놓고 다투다 보면 감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자연히 모임이 깨지게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생산된 물량 전체를 취급하지 않고 부분적인 처리를 통하여 운영을 하였다고 한다. 그간 소개상들에게 받은 고통은 단지 용인지역 육계업자 뿐은 아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었던 것 만큼 이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생

산기반이 미약한 육계업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용인분회의 경우 조합운영을 바탕으로 모아진 자본금을 투입 "수지축산"이란 상호로 소개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가입자 전원이 용인분회 회원이며 조합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사무실 운영이 되고 있다. 투자비용은 조합비를 이용 차량 및 사무실 임대료에 약 400여만을 들여 1일 1~2만수를 이곳 「수지축산」을 통하여 출하하는데 소개비는 kg당 10원씩이다.

비록 이사업은 규모나 거래량으로 보면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한국형 브로일러산업의 계열화 사업에 진일보한 발전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과거에는 이론적인 근거도 없이 닭을 키우던 시절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일이 아닐런지(?), 생산자가 유통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자체가 산업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모든 것을 정부차원에서 해줘야(보호) 한다는 축산인들이 많다. 그러나 정책적인 뒷받침은 분명 그 구분이 있어 가능한 것이 있고, 보호를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다.

용인분회 처럼 양계인들은 과거 10~20년전의 생각만 할 단계가 아님을 깨닫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것은 과감하게 실행하고 나머지 민간 차원에서 해결키 어려운 사업을 보호육성해달라는 의사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소개소의 운영도 지역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용인분회 육계생산자들은 전국적인 단위로 생산자들이 단합하여 육계

출하가격을 고시할 수 있는 조직력이 있어야 함을 거론하고 있다.

### 모범적인 단체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이제까지 생산자들의 수준이 생산에만 의존했다고 보면 행정적인 수준은 생산과 공급에만 주력해온 것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가 민간주도하에 움직이는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경제여건상 정책적인 보호를 배제할 수가 없게끔 된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생산과 공급에 의한 육계

산업발전의 보호육성은 어려운 이야기이므로 과감한 유통소비부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주도하에 전반적인 유통개선은 아니더라도 생산자나 기타 소비자에 가까운 조직체가 유통사업에 참여할 경우 보호육성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용인분회와 같은 모범적인 생산자 단체는 절대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계직매장 건립만 하여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비의 적립으로는 10



▲ 회원들이 운영하는「수지축산」소개소

여년 이상이 걸려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밖에 자체 사료공장, 부화장, 도계장 운영시에는 더욱 그러한 실정이다.

행정상의 지원문제를 본회와 적극 절충해 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최분회장의 각오는 매우 힘있게 보였다.

### 계열화사업에 선도적 역할 할 터

88년1월 임원진을 새로이 개편한 용인분회 최종필(성수농장)회장은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 "지금까지 전임 회장님과 회원들이 하신 말씀을 종합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무엇보다 육계생산자들의 단합이 선결과제이고 이 단합을 위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본회운영이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명실공히 생산자가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양계협회 발전이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는 농민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제도적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생산비중 절대량을 차지하는 사료비에서 사료효율만 개선하라는 식으로 정책을 펴지말고 수입되는 사료원료의 관세문제, 농산물의 부가세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사료효율에 대한 노력이 있지 않겠나 합니다. 이점은 꼭 해결되었으면 하는 점이고 앞으로 제가 부여받은 분회장직의 최대한 권한을 통하여 자가 사료공장운영, 부화장건립, 육계직매장설치를 현실화할 수 있는 여건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즉 계열화사

**국내 양축업자가 경쟁력을 갖게끔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주고 모범적인 생산자단체는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

업 추진을 시도해 나가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필연적으로 회원간의 단합이 중요하고 관내의 회원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이번 용인분회를 다녀오면서 그간 답답했던 마음이 동해바다를 보는 마음처럼 확트었다. 보호받기만을 바라는 구태의연한 생산자가 많은 반면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 일치단결하여 선진국형 계열화사업의 첫단계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양계인들에게 알릴 가치가 있다고 머리속에 떠올랐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대부분 양계인들의 모임 잔치에는 닭고기를 먹는 경우가 보기 드문 현상인데 취재차 갔던날 음식집에서 전회원들이 테이블에 앉자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 "닭도리탕"이었다. 설명이 없어도 단결된 이유를 금새 이해할 수가 있었다.

대한양계협회용인분회 현황

직책	성명	농장
고문	임종호	대동축산
고문	이예웅	성일농장
회장	최종필	성수농장
부회장	최진호	명진사육장
감사	김웅배	동원농장
감사	박대선	초원농장
총무	배용돈	부자농장
운영위원	정차용	서천농장
"	양재천	양일농장
"	이선영	선미농장
"	이문성	금수농장
"	홍철	청원농장
회원	김녹현	풍원농장
"	김동선	경희농장
"	김순택	대광농장
"	김재선	득비농장
"	김찬원	.
"	박창오	오자매농장
"	박춘웅	낙원농장
"	변길선	성남농장
"	양민웅	안성농장
"	윤재현	은행농장
"	이영섭	가나안농장
"	이은규	현수농장
"	이진수	경기농장
"	이한성	동막농장
"	이희재	.
"	최영복	대보농장
"	홍종민	동산농장